

성곽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영국 성곽문화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ility Desig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Considers the Preservation Environment of Castle Heritage

- Focused on the Castle Heritage in England -

이 견 하* 이 웅 구** 김 영 은***
Lee, Keon ha Lee, Woong gu Kim, young eun

Abstract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of providing facility for the utilization of castle heritage, as well as to establish the method for securing access and determine installation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preservation environment, a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ases of having secured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ngland for the advanced utilization of castle heritage.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planning factors of the 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ngland for the utilization of castle heritage were deduced as follows:

1) The plan for facility was focused on the disabled using wheelchairs and visually impaired persons, rather than on services for hearing-impaired persons and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2) As for audience movement line plan, regular route was used for audience movement line to lead them in a single direction. 3) As for the provision of prior access information, 3 stepwise access grades were established for the facility information plan of heritage. 4) As for information service by disability type, models were provided; and complementary explanation was provided by using text, drawing, picture, video and voice. 5) Rest spaces were secured where audience could look out upon castle heritage. For the utilization of castle herit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lanning factors of the facility desig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키워드 : 성곽, 문화재, 접근성, 장애인, 보존환경, 편의시설, 디자인

Keywords : Castle, Heritage, Accessibility, People with Disabilities, Preservation Environment, Facility, Desig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재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에게 소중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재 및 역사적 유적이 많은 현실에서는 추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경우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재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접근성 및 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 및 특수 요구를 가진 사람이 문화재를 방문할 경우 제대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많은 역사적 성곽유적 및 성곽문화재는 원래 전투기능을 갖는 것으로 장애 및 특수 요구를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용자와 같이 역사적 유적, 문화재 등을 돌아다니며, 그 풍경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의 건축원형을 훼손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및 문화 유적지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문화재 보존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원칙과 대립되어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곽 문화재의 경우 그 특성상 외부환경을 포함하고 있

* 주저자, 한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keonha@hanseo.ac.kr)

** 교신저자,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조교수
(mylee5277@naver.com)

*** 공동저자, 부천대학교 건축과. 강의진담교수
(archiyoung@bc.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서대학교 교비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으며, 역사적 자연생태환경까지 같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는 성곽 문화재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하여 성곽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접근성을 확보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성곽 문화재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건축 문화재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보다는 유연하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고려하면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선진 영국 성곽문화재 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접근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성곽의 축성술에서 산성과 읍성이 자연 및 주변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와 유사한 석축축성술로 구성되었고, 문화재 보존의 선진국인 영국의 성곽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성곽 문화재의 활용에 있어서 성곽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접근성 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보존환경을 고려한 문화재에서의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기준 및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법적기준에 대한 자료 수집과 문화재 보존의 선진국인 영국의 성곽활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국외의 법적 기준과 참고기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곽 문화재의 활용과 동시에 보존되어야 하는 환경을 위하여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성곽 문화재에 대한 고찰

현재 성곽은 사적으로 이곳에 포함된 건물들은 역사적 보존건물로 분류되고 있다. 역사적 보존건물의 사전적 의미는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이다. 그 의미 자체로 역사적 보존건물들은 보호되어야 하나 역사적 정보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활용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²⁾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화재의 활용은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써 큰 가치가 있다. 이에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조사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pp8-9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내관뿐만 아니라 관람로, 전시시설 등 관람을 위한 추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역사적 보존건물의 성격에 맞추어 전통적인 재료가 사용되기도 하며 현대적 기술과 재료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보존건물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정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과 지침이 없어 지도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잘못된 설치로 인해 보존 상태의 훼손 위험성도 있다. 성곽문화재의 경우 자연생태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역사적 유적지 및 보존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의 설치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사적으로 지정되어 사적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곽 문화재는 2011년 현재 58개로 현황 파악되어 있다. 역사적 유물에 대한 종합 정비 방안에서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³⁾

이러한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성곽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함께 활용을 위한 추가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곽은 성곽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변 자연환경까지 포함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성곽문화재는 지형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우선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접근성에 대한 편의시설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곽문화재는 산을 이용하고 있어서 평지에 구축되는 중국의 방형(方形)평면구성이나 중세 서양성곽의 별모양(星形)평면형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복잡한 평면을 이룬다.⁴⁾ 따라서 성곽은 여러 개의 계곡을 둘러싸고 설치되기도 하고 산등성이의 구불거리는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인 영국 성곽문화재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성곽문화재의 활용방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2 성곽 문화재의 활용과 보존환경

성곽 문화재 활용의 근간은 보존이다. 성곽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용을 생각할 수 없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국내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 방향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 지방정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굳건한 보존기반 위에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 모델의 창출”로 삼고 있다. 적극적인 활용은 문화재 보존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문화 가치를 생산하는 기반이 되며, 보존과 활용은 이원적인 개념이 아닌

3) 사적정비편람, 문화재청, 2011, pp40~42의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발췌하여 정리.

4) 산성의 경우 이러한 유형을 지니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선순환의 관계로 활용과 연계한 보수정비야말로 보존을 극대화하는 한 전략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적극적인 활용은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활용은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역사적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함인데, 향유기회를 끌고루 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적극적인 활용에는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보존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 방문자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보존환경 유지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유적지 및 보존건물, 문화재는 국내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문화재의 내·외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것은 문화재의 정비 또는 수리에 해당하기에 우선적으로 문화재 수리표준시방서에 수록된 문화재 수리 원칙⁵⁾을 따르고 있다.

문화재 수리원칙의 내용은 원형의 “보존”이라는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 원형의 보존을 우선하면서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오히려 보존건물의 훼손 및 문화재로써의 가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대로 된 활용은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3 성곽 문화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의 이동권 혹은 관람권의 문제는 문화유산의 원형유지와 경관 보존의 사이에는 항상 갈등관계가 있어왔다. 이에 최근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해서 신체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디자인 제공과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⁶⁾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및 관광 환경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많이 제안⁷⁾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의거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율 및 현황, 개선방안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성곽문화재는 주변의 생태적 자연환경을 절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이 점을 고려한 문화재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성곽 문화재의 경우 현재 보존 정책은 있으나 활용에 관한 방안은 지침을 마련하여 제안되고 있

나⁸⁾, 여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는 시설설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고려할 때 재료유형 및 구축적 특징으로 인하여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실제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오히려 성곽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성곽 문화재의 경우 외부 환경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완화되거나 유형에 맞는 기준 또는 정비 방안이 필요 한 것이다.

3. 해외 문화재 편의시설 법적 기준

3.1 해외 문화재에서의 정책 방안과 관련 규정

현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이 높은 유럽,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문화재에 대하여 그 대상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 보존과 관리상태에 따라서 편의시설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자국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정책 방안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역사보존법(NHPA, 1966)”을 기반으로 WBDG(The Whole Building Design Guide)의 Historic Preservation Subcommittee(역사보존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 보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만족하는 법적 기준들⁹⁾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UFAS): 49FR 31528에서 접근성을 만족하기 위한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변경, 복원, 개축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제안¹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역사적 보존건물에서는 접근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물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¹¹⁾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r(SHPO)의 승인을 통하여 보수 및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 보수라도 보존건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장애인협

5)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05

6)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 문화관광부, 2005.

7) 문화시설내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방안 연구, 손혜령, 단국대, 석사, 2001. 청각장애인 역사문화관광에서의 제약요인과 선택요인 분석, 김철현, 서울시립대, 석사, 2012. 등

8) 문화재청, 성곽정비 및 보존 관리 활용방안 지침마련 연구, 2008

9) <http://www.wbdg.org>에서 문화재 관련 법적코드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ADA, section 4.1.7에서 Accessible Buildings - Historic Preservation에 대한 접근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10) UFAS는 장애인 접근을 위한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모든 변경은 자문위원회 SHPO에 권한을 주고 이곳의 검토를 통해 변경할 수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물과 구조(예 : 역사적인 등대 등)를 파괴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는 없다. 이에 UFAS는 변경시에서 “구조상의 현실성”에 대한 예외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1) ADA의 Section 4.1.7은 역사적인 보전에 대하여 다루는데 세부적으로 ADA의 Section 504에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공하고, 유서 깊은 건물에 제안된 변경을 검토, UFAS 지침을 최소 기준으로 사용하며, 제안된 변경, 인테리어 및 외관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지 여부의 고려하여 허용한다.

회와의 조율을 통해 시청각 자료 또는 견본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인 자산은 임의로 변경될 수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하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지만,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접근성을 만족하는 한편 대안적 접근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보존건물의 속성을 파악하여 접근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2) 영국

국내 문화재보호법과 같이 영국에는 Guide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BS 7913:1998)의 보존 기준법이 있는데 이의 허락 하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편의시설 대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법인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강조해 왔다.

표 1. 국외 문화재에서의 장애인 접근에 관한 관련법과 참고 기준

국가	주요원칙	주요 세부사항	관련법과 참고 기준	
미국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변경, 복원, 개축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제안	대지	1.주차장 (ADAAG 4.1.2(5) 참조) 2.건물과 주차장과의 위치 3.접근경사로 - 경사로의 경사도 (ADAAG 4.7참조) 4. 접근가능한 경로 확보 5. 경로에서의 장애물 여부(휠체어사용자의 이동가능여부)	-UFAS Retrofit Manual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ADAAG) -National Park Service publications, including Preservation Briefs Standards for Rehabilitation -Preserving the Past and Making it Accessible to Everyone -Handicapped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Making Historic Properties Accessible Preservation Brief no. 32
		출입구	1. 1개 이상의 접근가능한 출입구 2. 접근가능한 출입구에 대한 안내여부 3. 접근가능한 출입구의 단차여부 4. 출입구의 충분한 폭 5. 출입구 전면의 충분한 여유공간	
		관람 경로	1.사이트의 모든 주요 건물입구에서 건물 안으로의 접근경로 여부 2.출입구에서 32 인치 최소 넓이와 지속적으로 최소한 36인치의 여유경로 여부 3.모든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의 지팡이가 장애물을 감지 할 수 있는가 4.계단 표면의 미끄럼 여부 5.계단 양쪽의 끊기지 않는 핸드레일 설치 여부 6.적절한 요구수준에 맞는 안내판(ADAAG 4.30 참조)	
		휴게공간	1.공공 휴게공간의 설치 유무(실외, 실내) 2.기준에 맞게 디자인된 접근가능한 휴게공간(ADAAG 4.23참조)	
		기타 편의시설	1.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음료대(ADAAG 4.15 참조) 2.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중전화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TDD phone (ADAAG 4.31참조)	
영국	역사적 보존건물 및 유적지에 대하여 부분적 파괴가 있을 수 있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기준들을 제안	-외부환경에서의 접근성개선	1.표지판과 안내판 / 2.Accessible routes 3.평탄한 지형 / 4.가로시설물과 조명 5.좌석 및 휴식 장소 / 6.정원과 조경 7.대지주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 2005 -Guide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BS 7913) -Design of Buildings and Their Approaches to Meet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Easy Access to Historic Landscapes English Heritage -Acces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Historic Buildings And Places
		-건물과 주변의 접근성 개선	1.주차장 / 2.주출입구의 접근성 / 3.단차의 극복 4.정문 / 5.건물순환로 / 6.조명 / 7.편의시설 8.피난시설	
		-정보의 제공	1.사전방문정보 / 2.통역정보 / 3.프로그램과 이벤트	
호주	역사적 보존건물의 접근성확보	1.주차장과 접근로 / 2.외부에서 수직이동 - 레벌단차가 클 때 3.건물 내 수직이동 - 레벌단차가 작을 때 / 4.건물 내 수직이동 - 레벌단차가 클 때 / 5.기존계단 보수 / 6.사인판 7.접근가능한 화장실 / 8.기존경사로 보수 / 9.기존리프트 10.문화적 유산 / 11.Cultural heritage / 12.조경	-Disability Standards for Access to Premises (Buildings), Canberra -Australian Buildings Code Board, 2004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Equal Opportunity Act 1995 -Making a Complaint About Access to Public Buildings, 2003, Melbourne -Initiatives on the Access to Premises Standard, Melbourne	

DDA의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시 문화재 및 문화 유적지에 대하여 부분적 파괴가 있을 수 있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기준들을 제안¹²⁾하고 있다.

DDA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1. 장애물제거, 2. 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3.합리적인 대안기능 제공, 4.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대체 서비스 방법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물 유형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도 있겠지만, 성곽 및 유적과 같은 외부 보존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아 이에 맞는 장애인의 접근성확보 기준¹³⁾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별도 기준은 국내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구하는데 참조할 내용이다.

(3) 호주

호주에서도 건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확보에 대한 법안이 영국 DDA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역사적 보존건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¹⁴⁾이 있다. 호주는 문화재의 유형적 특성이 역사적 보존건물, 즉 건축물 유형이 많아 내부에서의 수직 및 수평이동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해외의 자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요항목을 설정하여 설치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관련법과 참고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항목들로 요약 정리하여 보았다.<표 1 참조>

4. 해외 성곽문화재에서의 편의시설 조사

4.1 조사 성곽의 개요

성곽은 유럽건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국내에도 많은 성곽들이 있으며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 부재 및 활용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국내에서도 성곽을 따라 걷는 트레킹이 주요관광코스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이미 성곽을 따라 걷는 트레킹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성곽의 형태 및 축성재료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유럽의 성곽 중 영국의 성곽 문화재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확보를 위한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외 성곽 중 영국의 6개의 성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사례 성곽의 개요

구분	성곽명	위치
UKC1	칼라일 성 Carlisle Castle	Castle Way, Carlisle, Cumbria Ca3 8Ur
UKC2	링컨 성 Lincoln Castle	Castle Hill, Lincoln Ln1 3Aa
UKC3	시저라 성(켄달 성) Sizergh Castle	Sizergh, Kendal, Cumbria La8 8Ae
UKC4	스털링 성 Stirling Castle	Castle Esplanade Stirling Fk8 1Ej
UKC5	타인마우스 수도원과 성 Tynemouth Priory And Castle	Pier Road, Tynemouth, Tyne And Wear Ne30 4Bz
UKC6	어퀴트 성 Urquhart Castle	Drumnadrochit, Iv63 6Xj,

4.2 조사 방법

성곽문화재에서 장애 유형별 제공 서비스와 관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성곽 문화재 관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ACCESS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유형은 English Heritage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을 선택하였고, 사례조사에서 조사된 ACCESS 서비스 내용과 편의시설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표 3 참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만을 조사하였으며, 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한 접근성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 점을 주요사항으로 잡았기에 관람동선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유무와 관람유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3 종합 분석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접근성을 만족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었다.

① 장애유형에 따른 관람동선

성곽을 방문하면 방문자 센터에서 지정관람 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유형에 맞게 관람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장애유형에 따라 관람서비스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의 부분 훼손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규모가 큰 유적 및 문화재의 경우 자연스럽게 다양한 동선이 만들어 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조사한 영국 성곽 문화재에서는 관람객의 동선을 단일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순로 기능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관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며, 장애인 관람객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12)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English Heritage, London, 2004
 13) 영국은 역사 유적지와 보존건물의 외부환경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Easy Access to Historic Landscapes, English Heritage, London, 2005
 14) Improving Access to Heritage buildings: A practical guide to meeting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1999
 Practice Note AN 13.05.004: Improving access to heritage buildings and/or places, Royal Australian Institute of Architects, 2002

표 3. 장애인 편의시설 사례조사

구분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학습장애자	공통	사진자료
UKC1	핸드레일/ 휠체어용경사로/ 새로 설치된 경로만 접근가능/ 장애인주차장	핸드레일/안내견 동반가능	제공서비스없음	제공서비스없음	안내견 동반가능/ 유니버설화장실 / 핸드레일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1: 성곽문화재 외부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경사로 및 계단 사진 2: 성곽 주 출입구 - 성곽문화재의 관광 접근로 사진 3: 내부 이동로 사진 4: 성곽내부광장 - 평탄한 광장으로 보수					
UKC2	경사로/ 외부 및 내부접근로 평지/ 장애인주차장 / 일부내부공간 접근 불가능	관광안내인/ 안내견동반가능/ 모형물제공	제공서비스없음	모형물 제공	안내견 동반가능/ 유니버설화장실 / 핸드레일 / 식당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사진 5: 성곽 주 출입구 - 성곽문화재의 관광 접근로 사진 6: 단차가 있는 접근로에 설치된 경사로 사진 7: 성곽내부 광장에 설치된 모형물 사진 8: 성곽의 일부시설이 유실되어 지형만 보존 - 안내판으로 대체					
UKC3	1층과 외부공간 접근가능/ 2층 이용불가/ 핸드레일/ 장애인주차장	제공서비스없음	제공서비스없음	제공서비스없음	안내견 동반가능/ 유니버설화장실 / 핸드레일 / 식당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사진 9: 성곽내부광장 - 평탄한 광장으로 보수 사진 10: 성곽 주 출입구 - 성곽문화재의 관광 접근로 사진 11: 성곽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외곽에 설치된 휴게시설 사진 12: 멀티미디어 자료로 성곽의 복원 모습을 전시					
UKC4	보행 및 휠체어장애 한하여 주차장제공/ 휠체어에 도달할 수없는 영역 서비스제한- 모형으로 대체	점자블럭 및 점자안내제공/안 내소에서 점자안내서구입	제공서비스없음	제공서비스없음	안내견 동반가능/ 유니버설화장실 / 식당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사진 16
	사진 13: 성곽문화재의 외부 접근로 사진 14: 성곽 주 출입구 - 성곽문화재의 관광 접근로 사진 15: 성곽문화재 내부시설 출입구 사진 16: 관광안내소에 전시된 모형물-사각장애인을 위하여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음					
UKC5	휠체어 대어/ 핸드레일 장애인주차장/ 휠체어용 경사로 / 입구를 제외한 모든 관람경로의 가능	안내견동반가능/ 핸드레일	전용관람경로맵 제공 (해당관람경로에 안내서비스 제공)	제공서비스없음	안내견동반가능/ 핸드레일/유니버 설화장실 / 피크닉공간 제공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사진 17: 관광안내소 내부의 유니버설화장실 사진 18: 화장실 내부 사진 19: 성곽 주 출입구 - 성곽문화재의 관광 접근로 사진 20: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관광지정경로 제공					
UKC6	장애를 가진 방문자에 대한 도움서비스제공/ 동력 및 수동 휠체어 제공/ 장애인 리프트/ 장애인우회 관람경로 제공	안내견동반가능	제공서비스없음	제공서비스없음	안내견동반가능/ 핸드레일/유니버 설화장실 / 레스토랑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1: 성곽 외부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서 문화재로 향하는 접근로 사진 22: 관광안내소 - 성곽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됨 사진 23: 관광안내소 내부 -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진 24: 성곽 주 출입구 -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관광지정경로 제공					

② 접근성 사전정보 제공

영국(스코틀랜드 포함)의 성곽문화재에는 액세스가이드 라인을 따라 접근 등급을 3단계¹⁵⁾로 설정하고 각 문화재에 부여 하고 있다. 3등급으로 단계를 설정하여 성곽 문화재에서 방문 전에 장애인방문객의 관람 가능 구역과 이용 및 접근방법에 대한 모든 편의시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③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

성곽 문화재의 지형적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울 경우 성곽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간사용행태를 포함하여 성곽의 규모, 형태, 성질 등을 다양한 재료·공법 등을 이용하여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과 문자, 도면·사진, 영상·음성 등을 이용하여 보완적 해설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보존상의 이유로 성곽 내로의 접근성이 확보 되지 못할 경우 관망포인트를 두어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성곽 문화재 주변의 부설 전시시설

어퀴트 성(Urquhart Castle)의 경우 성곽문화재 주변에 전시관을 건설하여 성곽의 야외활용과 전시관의 실내 활용 등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이러한 부설 전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성곽과 같은 보존환경을 우선시 하는 문화재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어퀴트 성(Urquhart Castle) 전시관의 위치는 상당히 성곽문화재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성곽 주변 형태가 유실되어 그 범위까지 포함하여 자연환경까지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보존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조사대상 성곽에서도 부설 전시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성곽 내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설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관람객이 쾌적하게 성곽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휴식시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법적 기준을 고려 할 때 경로 중간에 일정간격의 휴게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성곽 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람 흐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구비하고 있다.

최소한의 휴게공간이지만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람동선에서 우회경로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휴게공간은 성곽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성곽에서 주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망포인트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성곽 문화재에 편의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 특

성에 맞는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다.

5. 국내 성곽 문화재에서의 활용방안

성곽 문화재의 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방향을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첫째 국내 성곽문화재의 경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환경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견찰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휴식시설, 화장실, 음수대, 벤치, 조명 등 편의시설의 규모·형태, 위치 등에 관하여 성곽문화재 내로 할 것인지 외부에 설치 할 것인지를 정한다. 단, 이러한 시설이 성곽의 보존 및 성곽의 역사적인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시설을 지정지 밖에 집중시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성곽 및 성곽지 주변환경에 대하여 전시관 등을 통하여 사적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성곽문화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의 방문자센터 또는 전시관 설치가 필요하다.

이때 성곽문화재 주변에 설치되는 방문객 센터 또는 안내소의 인테리어 및 외관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성곽의 주변지형과 전시관과의 자연스러운 동선 흐름을 가지도록 연계도로 및 진입로를 설정하고, 유도표식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등 성곽 내 관람로의 정비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성곽 문화재의 특성에 있어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접근로의 설치에 자칫 성곽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성곽을 전망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안내시설은 종합적 안내서비스와 장애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곽 입구에서 접근 가능한 출입개소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및 사진 등을 이용한 안내판 등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성곽 문화재의 전체적인 조화를 도모하고 성곽 문화재의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인위적인 휴게공간 설계보다는 적절한 식재 및 나무 그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물 설치에 디자인 및 재료가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성곽문화재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수 및 복원이 필요 한데, 이때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사항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의시설 설치시 현행 설치 기준보다는 성곽문화재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접근성을 중심으

15) 1등급 :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휠체어방문자, 2등급 :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방문자, 3등급 : 이동이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

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성곽 문화재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표 4 참고>

표 4. 성곽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

구분	항목설정	주요내용
관람시설	관람로	관람로의 이동성
		관람로의 안전성
	관람 안내판	관람 안내판의 편의성
안내시설	종합안내	접근성 사전정보제공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	개별안내판
		팜플렛(접자안내책)
	음성안내시설(지정된 경로)	
편의시설	화장실	실외 및 실내
	휴게시설	접근가능 및 이용가능여부
안전시설	출입문의 안전	이용가능한 출입구만 표기
	비상구	종합안내판에 표시

6. 결론

성곽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람객에게 편의시설 설치에 기준을 정의하고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곽 문화재는 역사 유산이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성곽은 작게는 지역, 크게는 시대의 발전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산이다.

성곽 문화재의 활용은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성곽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편의시설 제공의 방향을 세우고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접근성 확보 방안을 세우고 설치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선진적인 영국의 성곽 문화재활용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영국의 성곽 문화재 활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 1) 청각장애, 학습장애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휠체어사용과 시각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 2) 장애유형에 따른 관람동선 계획에 있어서, 관람객의 동선을 순로기능을 사용하여 단일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 3) 접근성 사전정보 제공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계획의 접근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4) 장애유형별 안내서비스에서 모형을 제공하며 문자, 도면,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이용하여 보완적 해설로 제공하고 있다.

5) 성곽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광대한 성곽의 모습을 한꺼번에 이해시키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다. 따라서 성곽 문화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특성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 디자인계획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해외조사 자료집, 2009.
2. 문화재청, 사적정비편람, 2011.
3.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2007.
4.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005.
5. 문화관광부,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 2005.
6. 문화재청, 성곽정비 및 보존 관리 활용방안 지침마련 연구, 2008
7. 김영은 외 2인, 서울시내 관광지외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07
8. English Heritage,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London, 2004
9. English Heritage, Easy Access to Historic Landscapes, London, 2005
10. 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Improving Access to Heritage buildings: A practical guide to meeting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999.

투고(접수)일자: 2012년 8월 31일

수정일자: (1차) 201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0월 19일